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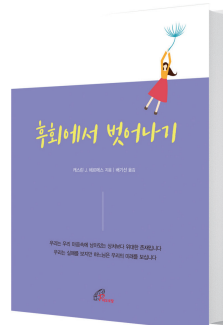
## 신간

##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쓸쓸한 밤,  
나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부

황인수 지음  
레벤북스 | 140쪽  
1만2천원 | 문의: 02)945-2972

최근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간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연대감, 다정함을 더 강하게 절감하였다. 마음을 담은 정겨운 안부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 이즈음, 이 책을 통해 세상이 따뜻하고 훈훈해지기를 빌어 본다.



## 신간

## 후회에서 벗어나기

캐스린 J. 헤르메스 지음  
바오로딸 | 256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저자가 마음 작업(Heart Work)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쓴 영성 서적이다.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실제 사례, 기도 훈련을 통해 하느님 사랑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고 신앙 안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영화

## 부활의 출발을 알리며...

개봉일: 7월 9일 | 상영관: 전국 CGV

〈울지마 톤즈〉를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이태석 신부는 내전의 땅 아프리카 수단에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헌신하다 마흔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신부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십 년 후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십만 킬로미터가 넘는 대장정! 남수단과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만난 70여 명의 제자들... 기자, 의사, 약사, 공무원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생은 40여 명이나 됩니다. 더욱 놀란 것은 모두가 생전 이태석 신부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취재가 아닌 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흥분했습니다.

영화 〈부활〉은 단지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활의 감동을 담은 영화입니다. 돈과 명예,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말하는 영화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함께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사랑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독 구수환

중헌홀딩스와 이태석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남수단에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화 <부활> 입장권 1매당 2000원의 마스크를 구입해 남수단에 보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